

전기차/배터리

그린산업/ESG 한병화
bhh1026@eugenefn.com

BEES에서 전기차로 확산될 K배터리 스토리

“ 미국의 BESS 시장 확대와 중국산 수입 차단은 지속

미국의 BESS 신규 설치량은 지난 해 51GWh로 40% 성장했고, 올 해와 내년 각각 67GWh, 85GWh로 33%, 27% 확대될 것으로 예상. 비 중국산 소재. 부품비율을 올 해 55%를 기준으로 매년 5%씩 확대해야 전체 투자액의 30~70%의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K배터리 수급이 필수. 또한 최근 대형 변전소 변압기, 계통 연계형 인버터, BESS, 고전압 차단기, 제어시스템 등의 수입을 안보 이슈로 제한하는 행정명령까지 발표된 상황. 미국의 전력 수요 증가가 리먼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상태이고, 신규발전 설비의 80~90%가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미국 BESS발 K배터리의 성장 스토리는 전기차만큼 강해져

“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 증가도 내년부터 재개될 것

올 해 유럽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당사 추정치인 21% 대비 높은 25~30%에 달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K배터리는 중국 수출 전기차의 급증 때문에 혜택을 못보는 상태. 8월말까지 중국 브랜드의 유럽 자동차 점유율은 11%이고, PHEV 포함 하이브리드 점유율은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 단기간에 수입이 급증하면서 유럽의 토종 자동차 산업은 심각한 위기 국면에 진입한 상태. 올 연말에서 내년 초에 중국산 PHEV에 대한 관세 도입과 EU 역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제조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입법화가 진행 중. 확정 시 K배터리의 유럽 시장 전망 개선될 것. 미국 전기차 시장도 내년부터는 성장세로 전환 예상. 보급형과 중저가 모델인 볼트, EV3, 리비안 R2 스탠다드 모델 등이 출시되고, 전용 플랫폼 모델인 BMW iX3, i3, 토요타 하이랜더, 제너시스 GV90 등도 판매 시작 예정. 스텔란티스, 현대차그룹의 EREV와 오래 기다린 테슬라 상용트럭 세미의 판매도 본격화되면서 전기차향 배터리 시장도 재성장세로 전환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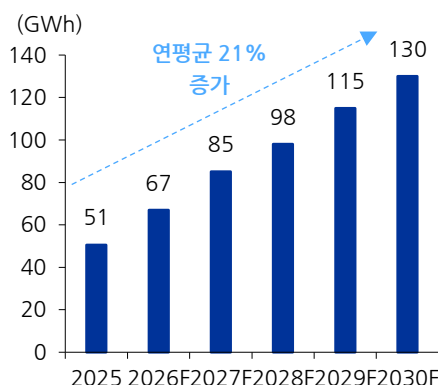
“ 각형 LFP에 이어 원통형 46파이 배터리까지 성장 동력 다양화

BEES 시장 확대에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각형 LFP 배터리 관련된 밸류 체인의 주목도가 높아진 상태. 내년에도 주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것. 이에 더해 최근에는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 증가도 기초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올 해에는 데이터센터향 원통형 BBU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내년에는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 수요 증가도 본격화 예상. BMW 노이에 클라세 모델들, 리비안 R2, R3, 테슬라 세미, 로보택시 모두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장착. 따라서 각형 LFP뿐 아니라 원통형 배터리 소재/부품업체들까지 성장세가 확인될 것. LFP BESS 각형 배터리 모듈, 캔, 원통형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신흥에스이씨(243840)**, **상아프론테크(089980)**, **상신이디피(091580)**와 원통형 캔 소재인 니켈도금강판을 공급하는 **TCC스틸(002710)**, **동국산업(005160)**도 주목해야

업종투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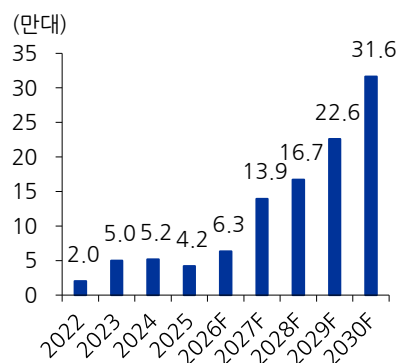
OVERWEIGHT

미국의 BESS 신규 설치 전망



자료: SEA, 유진투자증권

리비안, 2027년 인도 대수 급증 예상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1.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예측치

(천대)	2022A	2023A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2029F	2030F
북미 전기차 판매량	1,042	1,621	1,841	1,651	1,380	1,620	1,922	2,412	3,111
미국 전기차 판매량	918	1,436	1,570	1,474	1,183	1,397	1,659	2,089	2,715
YoY(%)	51.2	56.3	9.3	-6.1	-19.7	18.0	18.8	25.9	30.0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	6.7	9.3	9.9	9.0	7.1	8.2	9.6	11.8	15.1
캐나다 전기차 판매량	124	185	271	177	197	223	263	323	396
아시아, 대양주 전기차 판매량	6,271	8,574	11,644	13,529	14,810	17,045	19,340	21,430	23,236
중국 전기차 판매량	5,924	8,095	11,156	12,842	13,933	15,961	17,997	19,770	21,174
YoY(%)	83.7	36.6	37.8	15.1	8.5	14.6	12.8	9.9	7.1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	22.1	26.9	36.0	40.2	42.4	47.1	51.6	55.0	57.2
일본 전기차 판매량	96	141	110	115	139	167	201	242	292
YoY(%)	119.5	46.6	-22.2	4.7	20.8	20.4	20.4	20.4	20.5
일본 전기차 판매 비중(%)	2.1	3.0	2.3	2.3	2.8	3.3	3.9	4.6	5.4
기타 아시아 총합	251	338	379	572	738	917	1,142	1,418	1,771
유럽 전기차 판매량	2,602	3,010	2,945	3,856	4,669	5,790	6,561	7,656	9,071
YoY(%)	15.1	15.6	-2.1	30.9	21.1	24.0	13.3	16.7	18.5
유럽 전기차 판매 비중(%)	22.3	23.2	22.9	29.0	34.5	41.9	46.6	53.3	61.9
기타국가 전기차 판매량	175	485	1,193	1,577	1,971	2,424	2,909	3,433	4,016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79,475	87,242	89,860	92,556	95,332	97,239	99,184	101,167	103,191
YoY(%)	-1.1	8.0	3.0	3.0	3.0	2.0	2.0	2.0	2.0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10,091	13,689	17,623	20,612	22,830	26,880	30,733	34,931	39,434
YoY(%)	55.0	35.7	28.7	17.0	10.8	17.7	14.3	13.7	12.9
전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	12.7	15.7	19.6	22.3	23.9	27.6	31.0	34.5	38.2

자료: EV-Sales,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3%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4%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6.06.30 기준)